

담양 대나무축제 ‘야간 특화 체류형 축제’ 확장

郡, 5월1-5일 죽녹원 일원 개최
대숲 속 야간 영상 상영 등 제공
윤도현 밴드·드론 라이팅쇼 주목
입장권 상품권 환급 지역 상생도

담양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를 야간 경관과 다채로운 체험, 공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대규모 체류형 축제로 격상시켜 전국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으로 풀어낸다.

특히 방문객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축제장 곳곳을 수놓는 대나무 소망등과 야간 조명 장식, 관방천 수상 조명을 비롯해 대숲 속 야간 영화 상영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야간 관광

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전망이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5월1일 오후 5시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주차장 주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화려한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윤도현 밴드 등 정상급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가 대미를 장식한다.

이어 2일에는 정관스님과 기순도 명인이 참여하는 ‘맛이 죽(竹) 여주네’ 음식 경진대회가 열리며, 3일 군민의 날 기념식과 남진 콘서트, 5일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 뮤지컬 ‘베베핀’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무대가 연일 이어진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로운 담양 관광 캐릭터 브랜드선포식과 함께 팝업스토어, 포토존, 굿즈 전시를 선보여 축제장 전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종합체육관에서는 지난 25년간 군민과 함께 호흡해 온 축제의 역사를 영상으로 송출하고, 귀중한 축제품 전시와 대나무 솜터를 조성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진다.

관광제일 일원에서는 대나무 전통놀이, 뗏목타기, 수상 워터런 등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관람 동선을 넓힌 담빛음악당 일원에는 대나무 로봇 포토존과 드론 제작 및 스피드 대회 공간을 마련한다.

죽녹원 역시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이어가며 ‘대숲 영화관’을 최초로 선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동행축제’와 향토음식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축제 기간 죽녹원(3천원)과 메타랜드(2천원) 입장권 금액을 축제장과 읍내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더욱 눈부시게 진화한 야간 경관과 담양만의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 철쭉군락지 일림산 탐방로 ‘새단장’

5월2-4일 철쭉문화행사 개최
경사 완화 등 보행로 대폭 개선
공연·전시회 등 프로그램 다채

보성군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림산 철쭉군락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봄꽃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와 생육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앞두고 산악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 및 계단 구간 의 기존 목재 계단을 철거하고 완만한 경사형 우회 탐방로를 신설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정상 접근 구간 역시 경사를 완화해 고령자와 가족 단위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약 300ha에 달하는 철쭉군락지 전반의 생육 장애 요인을 제거해 개화 품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일림산철쭉문화행사추진위원회와 보성군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용추계곡 상단 주차장 일원에서 차나무 화분 만들기, 팽배나무 잘라가기, 어린이 목공놀이, 산림 문화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5월3일 오전 10시30분 정상에서는 사물놀이 공연과 철쭉제례, 도시락 나눔 등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보성군 관계자는 “탐방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일림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 누리집을 통해 주 2-3회 개화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는 반드시 금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응치면에 있는 ‘일림산’(정상 688m)은 골치재에서 626고지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산철쭉 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매년 봄 연분홍빛 철쭉이 장관을 이뤄 전국 수많은 상춘객이 찾는 대표적인 봄철 명소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최근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진행된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탐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흑두루미 북상 배웅...특별 생태체험 운영

29일까지 람사르길 일원서
배웅 탐조·뱀피 나누기 등

순천시가 람사르길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번식지로 북상하는 흑두루미를 배웅하는 특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흑두루미

의 안전한 이동을 기원하고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순천만을 찾은 약 8천600여마리의 흑두루미 가운데 현재 1천800여마리가 머물고 있으며, 이들은 이달 말 대거 북상할 전망이다.

방문객들은 벚꽃이 만개해 지역 대표 봄 명소로 꼽히는 람사르길을 거닐며 올해 마지막 흑두루미의 비행을 관찰하고 계절의 전환을 만끽할

수 있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배웅 탐조와 뱀피 나누기 프로그램은 흑두루미를 가까이서 관찰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솟대 만들기, 엽서 쓰기, 갈대 북 빗자루 제작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채로운 참여형 체험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벚꽃과 어우러진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과 공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본격화

郡-곡성사랑병원 MOU 체결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진료

곡성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방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손잡고 통합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성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곡성사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

정을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 관리와 맞춤형 건강 상담 등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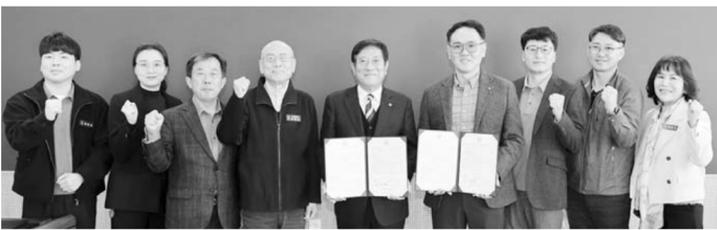
또한 군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펴 장기요양기관, 지역 돌봄 서비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평생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안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어르신들이 수준 높은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GS칼텍스, 저탄소 신사업 연계 ‘CCUS’ 캠페인

체험 교구 ‘푸스 키트’ 제작 배포
여수 초등생 500여명 교육 호응

GS칼텍스가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저감 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첨단 미래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교구를 선한다.

22일 GS칼텍스에 따르면 대중에게 낮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재해석한 교육용 크리에이티브 교구 ‘CCUS(푸스) KIT’를 전격 공개했다.

교구는 친숙한 소재인 ‘방귀’를 대기 중 탄소에 비유해, 가스를 포집하고 자양분 삼아 식물

을 키워내는 과정을 놀이처럼 구현했다.

이를 통해 탄소를 유용한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하는 순환 경제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여수 지역 초등학교 7곳,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전협의회와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저탄소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제1기 춘란스쿨’ 수강생 모집

오는 27일까지 선착순 100명

화순군은 22일 “춘란 재배 기술 보급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기 위해 ‘2026년 제1기 춘란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화순춘란재배교육장에서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춘란 기초 재배 이론부터 현장 실습, 병해충 관리, 품종별 특성 이해 등으로 구성돼 초보자부터 기존 애란인까지 폭넓게 참

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7일까지 군 농업정책과 난산업화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민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순을 대한민국 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춘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재배 시설 현대화와 유통 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축협, 60년 만에 ‘디지털 가축시장’ 신축 이전

내년 5월 준공...편의성 등 증대 기대

장성축산업협동조합은 22일 “노후화된 기존 가축시장을 약 60년 만에 신축 이전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가축유통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새 가축유통센터는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현대화된 유통 시스템을 완비한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특히 전자경매 시스템 등 최첨단 디지털 기반의 운영 체계를 전면 도입해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가

축 거래 환경을 조성해 지역 축산 농가의 편의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가축 이동과 관리의 효율성을 꼼꼼히 고려한 현대식 시설을 바탕으로 위생 및 방역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장성축협 관계자는 “기존 가축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축산업 유통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국 최고의 가축시장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